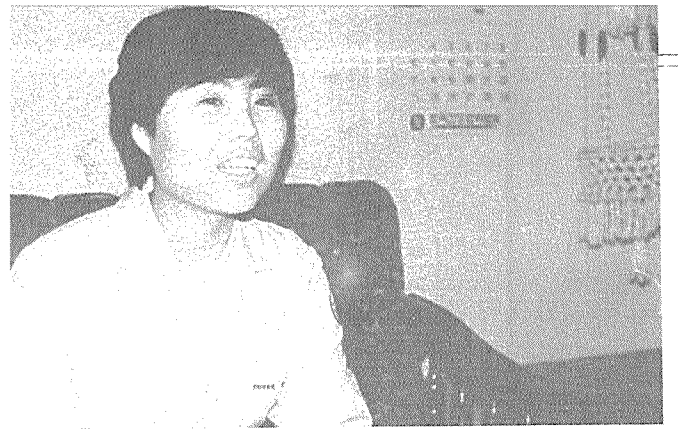

"예방 사업이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25세의 젊은 나이. 그 발랄함으로 한껏 젊음을 표현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려 조잘대고 싶을 그 시간에, 어느 농촌 구석(?)에서 아이들의 벗이 되고, 마을 주민의 건강 상담자가 되고, 또 때로는 친절한 구급의사의 역할까지 해내면서 하루하루 보람을 쌓아가는 여자가 있다.

함영자씨(25세.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양지리 양지보건진료소장).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멀리 북쪽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꿋꿋하게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그녀와의 만남 속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가온 느낌은 그녀가 예방의학에 대한 남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인 것이 예방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보건교육이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질병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병들은 치료를 해야 할 만큼 병이 깊어지기 전에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읍니까? 이를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겠고,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우선 갖추어져야죠.』 함소장의 이런 생각이 부임 1년도 안된 지난 봄에 그녀의 관할구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사를 가능케 했는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농촌지역에는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생활이 바쁘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 외에도 실제로 보건교육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료소의 역할이 현재의 진료중심에서 예방을 위한 보건사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재로선 어쩔 수 없긴 하지만…』라며 그녀는 보건사업의 중요성은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감하고 있지만 관계자들도 그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재정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또, 『보건교육을 하는데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한

가장 중요한 보건 사업"

양지리 보건진료소장 함영자 씨

행동변화를 짧은 시일내에 기대한다면 실망과 좌절 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굳어져온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라며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가득히 쾌활한 웃음을 담는다.

『보건교육과 더불어 예방사업이 가지는 중요한 점은 숨겨진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2차적인 예방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준다고 확신합니다.』라는 함소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자는 살아서 움직이는 이론의 가치를 진하게 느꼈다.

그녀가 양지보건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양지리, 이길리와 정연리(갈말읍) 주민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은 지난해 그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얼마되지 않아서 였다고 한다.

함소장은 부임하면서 자신이 쌓아온 이론과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검증해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경험도 없고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척 막막했읍니다. 제대로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를 고민하던 중에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건강검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막연한 가운데 지난 봄 제가 맡고 있는 3개 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했읍니다. 이 먼 곳까지 직접 나와서 검사도 해주고 해서인지 그런대로 좋은 반응을 보였읍니다.』라며 그녀는 『1년정도 지난 지금은 주민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떠올라요. 검사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고, 또 보건교육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 등등…』라고 덧붙인다. 마을주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한 잔소리꾼(?)이며, 아이들에게는 함께 공을 차고 뜀박질하는 누나인 함소장은 "알지 못하는 것은 나쁘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쁘다"는 말을 그녀가 만든 보건교육용 궤도 옆에 큼지막하게 써놓고 항상 노력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의 역군이기도 한다.

『내년이면 의무기간이 끝나지만, 지내면 지낼 수록 이곳을 쉽게 떠날 수 있을것 같지는 않네요. 몇년간 더 이곳 생활을 하고 그 후엔 1차보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을 맺은 그녀는, 『그래도 이곳 생활은 아무래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혹시 시간있으면 위문편지를 좀 써줘요.』라며 활짝 웃었다.